

2019년 10월 시청자위원회

2019년 10월 29일 (화) 오후 4시

대전MBC 4층 대회의실

참석 : 김선재 위원장, 권부남 부위원장, 임정규 위원, 양선희 위원,
이규홍 위원, 서한나 위원, 양흥모 위원

신원식 대표이사, 이재근 경영국장, 박선자 편성국장, 신영환 보도국
장, 서주석 미디어 전략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신원식 대표 :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멋진 계
절입니다. 최근 지역방송과 관련된 기사 가운데,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시스
템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올라왔는데, 대전MBC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
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
하고 진솔한 의견들 제시해주시면, 성심껏 듣겠습니다.

김선재 위원장 :

시청자 위원이 되고 난 이후 TV를 보는 행위에 일말의 의무감이 생겼습니
다. 마음의 스트레스라는 부분도 있지만, 즐거운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는 저도 보았는데, 저도 사장님의 생각
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전MBC 시청자위원회는 균형 잡힌 시청자위원 구
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계층이 망라되어 있
어, 실제 토의되는 내용도 편중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자부합니다. 이
러한 것은 우리의 토의 내용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균형 잡힌 시각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MBC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를 대표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 그러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규 위원 :

저는 가요베스트에 대한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가요베스트의 경우 오후 6시 경에 방송되는데, 시간대가 6시대가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대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도 부문에서 세종 KTX 유치에 대한 뉴스나, 네이버 데이터 센터 유치 등의 지역 현안은 노정렬의 시시각각 외에도 연계하여 심층 보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양선희 위원 :

보도부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역특성에 맞게 과학관련 보도와 대덕 과학 특구 관련 뉴스가 꾸준히 이어졌는데요, 지역의 정체성을 밝히는 보도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서 좋았습니다. 다만, 화상벌레 관련 뉴스에서 화상벌레가 발견된다는 뉴스는 있었는데, 대처방안에 대한 후속 보도는 없어 아쉬웠습니다.

임산부의 날 관련 보도 중에서 장애인 임산부 등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짚어,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정치 관련 뉴스 가운데, 세종시 정무 부시장에 다시 이 해찬 의원의 측근을 임명하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인터뷰까지 보도한 점은 언론의 감시견 기능이 적용된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보도 가운데 아쉬웠던 부분은 국회 세종 분원에 대한 뉴스 인터뷰에서 배재대 최호택 교수의 자막이 충남대로 방송된 점은 오류라고 생각되는데요, 최호택 교수의 활동이 많은 만큼 많은 분들이 이를 지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5개 발전소 미세먼지 1위, 기후 변화대응 국제 컨퍼런스 문제 등 환경에 대한 연이은 보도는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서 이러한 보도는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도 이번달에 방송되었는데요,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은 뉴스 외에도 캠페인이나 연속보도 등으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 연속 기사로 편성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기사를 작성하는 시각이 서울에서 방송되는 뉴스의 제작방향과는 다른, 지역의 색깔이 있는 시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10월 2일 뉴스데스크 부분이 투데일로 연결되는 오류도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제작부문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는 세상은 대학생들이 주가 되어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주제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은 노잼도시라는 주제의 중복은 사전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오롯이 당신은 본격 음악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웃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생각되는데, 가수를 전면에 내세우고 일반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10월 1일, 학생 1명의 학교 이야기인데, 프로그램의 소재목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주제와 타이틀과도 조금은 어긋나 있어 보입니다. 좋은 제작물의 타이틀과도 어울리는 느낌과 주제를 공유하는 소재목을 기대합니다.

오롯이 당신 하면, 한사람의 주인공을 생각하게 되는데, 10월 8일 방송에서는 녹도 보건소장에 이어 주민들이 연이어 등장해서, 프로그램 구성에서 조금 벗어난 모습을 보여 의아했고, 진행자가 어느 부분에서는 사라졌다 등장해서, 일정한 포맷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행자가 없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권부남 부위원장 :

저도 내가 그리는 세상을 즐겨 시청하는데, 대학생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참신하기도 하고,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느낌이, 수용할

만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기도합니다. 다만 주제가 근로계약서, 3일 동안 전자기기 없이 살아가기 등 방향이 없는 느낌으로 청량제 같은 신선함과 동시에 어수선했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주제의 일관성이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에는 찬성하고, 노정렬의 시시각각 등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청소년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기사는 조금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청소년은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한 시기이기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단어가 적절한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된 대전 동부교육지원청의 건물 모습이 옹기 이전의 옛 건물 영상을 사용하여 아쉬웠습니다. 이전한 교육지원청의 모습을 방송에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양흥모 위원 :

프리랜서 아나운서 문제로 지역에서 대전MBC를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와 의견을 듣습니다. 얼마 전 대전MBC 시청자 게시판에 이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고, 대전MBC의 답변도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중 대전MBC의 입장문 말미에 당사자,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타 언론의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언론사에게 정리하면 될 것인데, 시청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 입장문의 내용은 오해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시청자를 직접 만나게 되는 게시판에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불만처리 부분도 처리 여부만 있지 직접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습니다. 각 게시글에 답 글을 다는 것도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와의 소통은 시청자위원회 뿐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진행했으면 합니다.

현재 대전MBC는 작년 개편이후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되고, 시사관련 프로그램은 시시각각 하나 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관심이 많았던

시사플러스 폐지 이후 시사 관련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 연이어 지역의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시시각각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는 방송에서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을 남깁니다.

최근 MBC 전체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탐사 보도에 대한 호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본사의 이러한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주말 뉴스를 보면, 개인적으로 공중파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력 면에서 부족하겠지만, 행사보도 위주의 주말 뉴스는 전파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나 분량관계로 주중에 쉽게 내보내지 못하는 심층보도나 탐사 보도 등을 주말뉴스에 배치하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유일한 시사 프로그램일고 할 수 있는 시시각각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방송된 부동산 관련 부분은 케이블 방송 수준의 이야기만을 담았습니다. 분양, 재개발, 주택시장 상황 등을 소개했는데 투기를 조장하는 듯한 정보만 나열하여, 서민을 위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펴는 정부의 시책과 반대로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재와 주제는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한나 위원 :

저는 먼저 오롯이 당신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 드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수가 나와서 공연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알고 시청했는데, 가수 오지은씨가 출연하여, 젊은 층에서 반기는 가수를 출연시켜, 출연한 가족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지은씨와 같이 출연자들의 스토리에 공감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수가 자주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행자의 의상도 처음에는 포멀한 의상에서 회를 진행할수록 캐주얼한 의상으로 변모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게시판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이나 문구에 보다 신중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규홍 위원 :

창사 55주년으로 방송된 보도특집 다큐멘터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에 걸쳐 방송된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세종시에 대한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어,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대전 인근의 자치와 관련된 이러한 활동들을 보다 많이 전달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유익한 정보를 보다 많이 얻었으면 합니다.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뉴스들도 보도되어 잘 보았는데요, 과학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대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과학관련 뉴스 가운데, 대덕특구 간담회, A형 간염, 태풍 관련 뉴스 등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A형 간염관련 뉴스를 통해 상당히 이 질병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피부로 느꼈는데, 그 심각성에 대한 각별한 강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풍 관련한 지질 자원연구소의 연구를 소개한 800년만의 최대 태풍주기 뉴스는 대전지역에 강점을 가진 연구소가 많이 있는데, 이를 잘 이용한 뉴스여서 반가웠습니다.

건강플러스를 자주 보는데, 음식, 효능, 조리법,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잘 짜여져 있어 흥미롭습니다. 지난번과 유사한 이야기지만, 초등학생, 중학생 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친근감 있게 전달되는 방법을 보다 고민했으면 합니다.

고양시 행신도서관에서는 10월의 하늘이라는 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는데, 매년 10월 오늘의 과학자가 내일의 과학자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재미있고 쉬운 과학이야기를 행사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과학자가 많은 도시인데, 이와 유사한 기획을 통해 과학문화 소통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으면 어떨까 ?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선재 위원장 :

저도 이규홍 위원이 언급한 창사 특집 시민이 가꾸는 세종자치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2부작으로 구성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반가웠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분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모든 것을 다루다 보니, 도시 전체의 너무 많은 부분을 열거하여, 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많아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는 자막이 있어 전달이 잘 되었는데, 나레이션시에는 상세한 자막이 없어,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홍성의 오서산 주민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참신했고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지역방송은 지역의 문화와 지역민의 이야기를 담아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전의 경우, 노잼의 도시라고 하지만, 대전도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방송이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만의 상징이 무엇인지 또 그와 관련된 이벤트는 어떻게 만들지 방송이 선도했으면 합니다.

테마기행 길 진천 편도 인구감소를 벗어나고 있는 진천에 대한 이야기가 유익했지만, 마지막 클로징 부분의 최주봉 진행자의 멘트에서 농업과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진천이라고 언급했는데, 농업과 관련된 진천의 모습만 보여주다가, 갑자기 첨단산업을 언급하여 무언가 좀 오류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가운데, 막걸리를 마시고, 농기계 다루는 모습을 방송해서 이러한 점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정규 위원 :

4차 산업혁명 시대, 여성의 가치에 대한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여성 인격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 아나운서 문제에서 여성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외에는 문제 제기할 방법과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에서도 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의식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함께 가는 사회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부남 위원 :

주말 뉴스 부분에 대한 저의 의견을 첨언합니다. 주말에 인력이 부족해서, 주말스케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인력과 제작 등을 보다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뉴스 아이템 가운데 충남의 독립 지도자 이동녕에 대한 이야기와 국회 분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틀 연속으로 방송되는 것은 중복이라는 생각입니다.

여성 아나운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정규 위원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신원식 대표 :

방송과 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다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부분을 시청자위원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자게시판에 보다 자세한 답변을 게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청자들의 의견제시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냐 라는 의견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회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표현상의 문제까지 등장해서 회사에서는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는 어떠한 팩트에 대한 일방적 확대 재생산의 문제와도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기업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 회사는 종업원 10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의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MBC와 관련된 사항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확대,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상세히 설명 드리면, 성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인사부분은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지난해, 회사는 7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는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전체 인원의 1/10에 해당되는 인원입니다. 저희 회사의 인력 채용구조는 완전히 블라인드 되어 각 분야별로 외부간섭 없이 진행되는, 사장의 입김도 먹히지 않는 채용구조입니다. 채용된 신입사원 7명중 3명의 여성이 채용되었고,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지 못했던 기술 분야 신입사원으로 여성이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채용이 이루어졌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문제제기를 했던 해당 아나운서는 그 응모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니다.

문제제기 이후 보복 인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명에 대한 프로그램 변화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프로그램 개편에 따른 변화입니다. 방송사는 정기, 혹은 수시 개편을 단행하고, 제작팀 및 진행자에 대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두 명도 다른 진행자와 마찬가지로, 제작팀의 의견수렴과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프로그램 변동 속에서 업무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제기된 이후 제작팀과 출연자와의 소통과 신뢰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에 대한 방송의 성적 상품화를 위한 희생양이라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젊은 여성 출연자 외에도, 남녀 모두 다양한 연령대의 방송 진행자들이 존재하고, 방송의 주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방송 진행자보다 나이가 있는 중년 이상의 진행자가 더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정규 :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분들이 이번 문제를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보다 전향적인 문제 해결을 바랍니다.

이규홍 위원 :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별도의 자리에서 보다 긴밀하게 이야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홍모 위원 : 이 사안은 방송의 목적과 운영, 편성, 시청자에 대한 이야기를 대변하는 시청자위원으로써 당연히 다뤄야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쉽지 않지만, 지역사회와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해명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위원장 :

쉽지 않은 주제와 이야기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가능하다면 별도의 자리에서 보다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하고, 이번 달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이렇게 정리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 (참여자 찬성 의견 표명) 그럼, 이번 달 시청자위원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